

환자 중심의 간호 업무

〈원주기독병원 간호원장〉 손 덕 수

간호와 행정을 맡아 보고 있는 저에게는 간호원과 환자치료라는 제목은 제가 한번 다루고 싶은 제목입니다.

지난 수년간 간호 교육분야에 있어서 많은 발전과 진보가 있었습니다. 간호 교육이라는 개념에 있어서 이와같은 변화는 이 사회의 압력과 간호 전문직에 대한 관점의 결과였습니다.

우리 간호 전문직의 위약성은 현재 간호행정의 분야에 속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과서와 그 지식의 적용에 있어서는 커다란 간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완전한 환자간호에 있어서 과학적인 원리를 등등하게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와같은 지식을 실생활에 적용하지 않는 한 이 기본학문을 습득하는데 3년 내지 4년간이라는 기간을 소요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응용은 전문직업의 간호원과 비전문직원간의 차이입니다. 전문직의 간호원은 그가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의사에 의하여 필요로 하는 일에 대하여 호응할 수 있게 될때 오로지 의료직원의 일원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호원이 그가 습득한 모든 지식을 사용하여 환자치료에 이 지식들을 응용하는 것이 전문적 간호원의 의무인줄 압니다.

이것은 관찰과 듣는 것, 그리고 실행하는 것 모두를 포함합니다.

이와 같은 일이 즉 간호행정이 병원행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호행정은 다른 분들에게 완전한 환자간호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스스로가 우리들의 목적과 대상에 대하여 확고부동한 자세를 취하여야 될 것입니다.

오로지 이와 같은 목적이 철저히 확립된 다음에야 병원행정에 있어서 간호원의 목적이 존경받게 되는 것이며, 따라서 환자에게 있어서 완전하고도 안전한 회복을 기할 수 있는 여러가지 이로운 치료를 환자에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간호행정에 있어 우리들은 빈번히 다른 과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환자치료를 위하여 이루어진 일들을 등등화하는 것을 보느니보다 차라리 우리들의 할 일에 대한 뜻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간호과는 병원 내의 각분야 사이에 충분한 상호협조가 서로 이루어지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여야 하며, 그러므로서 극단적으로는 환자가 이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탁상에서는 되지 않습니다. 간호과에서 간호과의 목적하는 데 대해서 무엇인가 결정하였으면 아무리 총무과나 시에서 번역주사 하는데 간호원을 보내라고 하더라도 방해받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많은 환자가 있어 간호원을 보낼 여유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설사 간호원이 여유가 있더라도 그렇게 다급하게 알려주면 저는 뜻 보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거의 모든 간호원장에게 이와같은 일은 어렵다고 생각되나 우리는 곧 이런 것을 시정하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로지 앉아 우리 간호원의 책임이 우리들에게서 떨어져 갈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전 직원이 다른 병원에 취직할 때 거기에서 추천서가 오면 그 날에 기입하여 보내는 것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좀 전에 본원에 그와 같은 조희서가 왔습니다. 간호원장인 제가 조희서를 작성하여 보냈더니 수차 다시 반환되어 왔습니다. 결국 우리들

은 무엇이 잘못되어 반환되는지 알려주면 저희들이 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은 또한 우리 병원에서는, 간호원에 대해서는 간호원장이 책임진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 알고 싶은 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과거 근무기간이나 월급이 얼마나 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전문직에 대한 지식의 응용능력과 학구력 등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와같은 특질은 다른 간호원에 의해서만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와같은 것들이 환자치료에 무슨 소용이 있는냐고 여러분이 말할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대답은 간단합니다. 환자간호에 좋고 나쁘고는 간호행정가가 모든 간호원과 환자를 대하는 태도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Interview)

저는 간호원교육에 있어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저의 원주연합기독병원 간호원들은 다른 병원에 계신 분들 보다도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한국의 방방곡곡 모든 곳에서 오는 간호학교 졸업생들과 같이 일하여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병원에 간호원을 보내준 많은 학교에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여러가지 면에서 저희들은 간호원 감정가가 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우리는 전체적인 환자간호 영역을 생각하기 전에 신입 간호원이 졸업 간호원으로서의 신입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같은 것을 믿습니까?

저는 신입간호원이 환자 방에 들어가는 것이나 또는 혼자 환자를 치료하게 하면 두려워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이것은 그 간호원을 비난할게 못됩니다. 왜냐하면 간호원이 학교에서 일년 간 환자를 보았던 것보다 훨씬 많은 환자들이 한 병동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상기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것은 간호원 교육방법이 아닌줄 압니다. 우리는 때로 새로 졸업한 간호원에게 경험있는 선배간호원이 그 일이라면 실제 경험이 없더라도 맡겨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그는 졸업하였음을 인식하고 할 수 있다고만 생각하지, 경험의 부족함을 인정하려 하

지 않습니다. 그는 체면을 잃기를 싫어합니다. 우리는 다른면에서 그 간호원이 그의 부족함과 과오를 인정한다면 더욱더 성숙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신입 간호원은 간호원실에서 안전을 갖고 투약과 처방을 하는 것만이 간호원의 책임인줄 알고 편안히 간호원실에 앉아 있는 것을 봅니다.

환자가 결국 그의 참된 안전이라는 것을 그 간호원은 잊어버립니다. 환자를 묵묵시켜 주고 back care하고, 환자의 문제 또는 기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있어서 우리의 시간과 노력은 탄탄할만 합니다.

저는 거의 모든 신입간호원이 bed side care가 그의 책임이 아니라는 생각이 어디에서 생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간호원이 일하는 분야가 따로 있다는 것을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계는 간호원이 마침 환자방에 있으면서도 환자가 변을 마쳤을때, 벨 편을 안가져 간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졸업간호원이 그냥 그 방을 지나서 간호보조원을 불러 벨 편을 가져가라고 말하는 것을 여러번 보아왔습니다. 변명은 "그것은 간호보조원이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환자를 위토하는 것은 또한 간호원의 할 일입니다. 신 혹은 구간호원 훈련에 있어서 우리의 가장 어려운 분야의 하나는 관찰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 주는 일과 치료와 매일의 접촉입니다. 왜냐하면 신입간호원은 대부분의 경우 환자보호자에게 약을 주는 책임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 간호원은 약을 줄 때 기대했던 일 혹은 부작용 같은 것을 관찰할 책임이 있음을 망각합니다.

신입간호원 혹은 구간호원을 격려하고 자극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현직교육이 수행되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육의 중요성은 어떤 면에서나 측량할 수는 없으나 환자회복에 있어서는 차라리 중요한 것입니다.

간호행정은 우리가 의사들과의 협조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전문직 간호원들이 어떻게 그들의 명령을 수행하고 관찰할 것 등을 보고하는

신용도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이와같은 일들은 환자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환자를 위하여 좋은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의료전문직의 발전에 발맞추어야 합니다. 이와같은 새로운 사실과 학문과의 대동성을 교육과정에 훈련을 통하여 가장 잘 이룩될 수 있습니다. 여러 경우에 있어 병원에서 간호원이 켈을 쓰고 유니폼을 착용하였을 때 간호원교육을 마친 것으로 생각하는 일이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환자 치료가 급선무이며, 우리들의 최대관심을 환자에게 기울이는 것을 다른 직원에게 보여준다면 우리는 존경받게 되고 또한 간호와 운영에 있어 훨씬 응이할 것입니다. (ward conference)

저는 최근에 우리가 당면했던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병원에는 간호원 부족으로 쓰지 않는 병동이 하나 있습니다. 입원해야 할 환자가 많았을 때 중무과와 의사들이 그 병실을 쓰자고 하였으나, 우리는 우리들의 주장을 관철하여 그 병실을 사용하지 않고도 결국은 많은 환자들이 퇴 퇴되어 나가고 병실의 여유가 생겼던 것입

니다.

들께 예로 약 두주일전 일인데, 홍콩감기로 많은 간호원이 병가하게 된때다가 크리스마스 휴가가 겹쳐 손들이 굉장히 바빴읍니다.

이 문제를 병원당국에 제시하여 응급환차 의회는 입원을 시키지 못하도록 하였던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병원에는 재정적으로 큰 손실이나 간호원이나 환자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은 사실을 밝힌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간호원은 다른 의료직원과 함께 그의 맡은 바 책임을 수행할 때 존경받게 되는 것입니다. 간호원장의 관점에서 보는 증점적인 완전한 간호의 토끼은 간호과장 자신의 책임의 우월감과 병원 행정과 일반 간호원들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간호원장이 어떻게 그의 행정을 통하여 그의 과학적인 원칙과 지식을 그의 직원들과 잘 관련시켜서 나가며 어떻게 잘 환자치료를 수행해 나가는가에 있습니다.

==일반 간호원을 위한 목표.==

제가 바라는 한사람의 일반간호원으로서

- 1) 환자들에게 유익하고 완전한 그리고 각환자 개인에게 적절한 간호를 할것.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는 환자들의 육체적, 정신적, 감정적인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인식해야 하며 가능한 한 이 요구들에 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 환자들을 늘 주의깊게 관찰할 것.
- 3) 일반 건강 회복과 또 특별한 필요를 요하는 환자에 따라 적당한 지도를 하여 줄 것.
- 4) 활 기록을 정확히 하여 줄 것.
- 5) 좋은 수법으로 주의깊게 간호처치를 할 것.
- 6) 다섯가지 원칙에 준한 틀림이 없고 주의깊게 투약할 것.
- 7) 조직, 계획, 이행 등을 어떻게 하며, 할당업무를 최대한 능률적으로 어떻게 이행할 수 있는지를 배울 것.
- 8) 할당된 책임을 맡고 이행하는 것.
- 9) 의사의 지시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행할 것.
- 10) 물품들을 주의해서 사용할 것.
- 11) 환자나 직원들에게 부주의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는 위험들을 일깨워 주며, 여러가지 사고를 미리 방지하도록 노력할 것.
- 12) 다른 직원들이나 환자 또는 가족들과도 협조적이며 인내하고 명랑하고 가능한 한 최선의 태도로써 일할 것.
- 13) 정한 시간에 근무자에게 보고하며 다른 활동에 있어서도 시간을 엄수하여야 한다.
- 14) 근무시간이나 휴무시간에도 언제나 말쑥하고 깨끗한 차림을 가지도록 할 것. 특히 근무시간에는 복장, 모자, 양말 및 신발들을 언제나 깨끗하고 단정하게 할 것.
- 15) 좋은 전장의 원칙들을 이행할 것. (적당한 식사, 적당한 수면, 적당한 오락 등을 가질 것.)
- 16) 직접적인 면에서나 개인적 양면에서 다 지속적인 배움과 성장과 발전을 갖도록 노력할 것.